#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신 형 철 문학평론가·조선대 문예창작학과 교수

대학 제도를 다루는 문헌에 자주 나오는 '리버럴 아츠'(liberal arts)라는 개념은 라틴어 '아르테스 리베랄레스'(artes liberales)에서 온 것인데 '자유로운 예술'이 아니라 '자유인을 위한 과목'을 뜻한다. 간단히 자유과(自由科)라고 옮길수 있겠다. 신분제 사회에서는 '신분적으로 자유로운 사람'(상류층 엘리트)만 배울수 있는 학문을, 계몽주의 이후에는 '정신적으로 자유로운 사람'(비판적 지성인)이 되려면 배워야할 학문을 뜻하게 되었다. 오늘날에는 흔히 '전공 교육'과 반대되는 '교양 교육'을 뜻하여, 특수한 전문가가 아니라 전인적 교양인을 기르겠

# 우리가 자유로워지기 위해

다는 취지의 대학을 '리버럴 아츠 칼리지' 라 한다.

대학에 대해 말하려는 것은 아니고, 자유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배워야할 필수 교양과목이 있다는 발상 자체를 새삼 음미해 보려고 꺼낸 말이다. 고대 이래의 '자유과'(더 정확히는 '자유7과')는 문법, 수사(修辭), 논리, 산술, 지리, 천문, 음악으로 구성됐다. 이 과목 구성을 오늘날에도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고 실제로도 그러지 않는다. 각시대모두 나름의 사상과 필요에 따라 교육의실제 내용을 달리해 왔다. 우리 시대의 조건이 반영된 자유과는 무엇일까. 우리가그야말로 '자유로워지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할 것은 무엇인가.

가장 먼저 떠올린 것은 헌법이다. 고등학교 때 헌법의 기능과 개정 역사 등을 배웠을 테지만 조문 하나하나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곱씹은 기억은 없다. '헌'(憲)은 '법'이나 '관청'을 뜻하는 글자인데, 글자를 분해해 보면 '해로운[害] 일이 없도록 눈[目]과 마음[心]으로 감시한다'는의미가 숨어 있다고 전하는 자전의 풀이가 과연 타당한지는 모르겠으나, 여하튼

법의 세부 내용은커녕 헌법이라는 글자 자체의 뜻도 모르고 살아왔으니 한심한 노릇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 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물론 이 1조 1항 과 2항 정도는 외우고 있다. 그러나 대한 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는 규정과 그 뒤 를 잇는 '국민주권론'의 선언이 얼마나 엄중한 의미를 갖는 것인지에 대한 나의 공부는 여전히 부족해서 '헌법 사용 설명 서'(조유진, 이학사)를 읽었고 처음 알게 된 것들이 많다.

로마가 마지막 왕을 축출한 이후 스스로를 '공화국'(republic)이라 했는데 이는 '공공의 것'(res publica)이라는 라틴어에서 온 것이라 한다. 말하자면 공화국이란 일차적으로 '왕이 없는 나라'를 뜻한다. '평등한 개인들의 동의에 의해 만들어진, 사적이해가 아니라 공적가치에의해 구성되고 운영되는'이라는 뜻의 '공화'(共和)가 그로부터 파생 심화됐다. '국민주권론'에 대해서도 다 안다고 할것이 아니었다. 예컨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에서 '권력'이라는 말은 '권

리' '권한' 등과는 달리 법률용어가 아니라는 것, 이 '의지와 감정이 담긴 대단히 정치적인 말'이 우리나라 최고 법 규범인 헌법에 쓰였다는 것은 '헌법이 고도로 정치적인 문서'임을 뜻한다는 것을 이제야알았다.

의 정당 정치에 대해서 배워야 한다고 생 가하다

우리는 고등학생들이 열악한 노동 현장에서 온갖 아르바이트를 하는 현실을 방치하면서 왜 그들에게 노동법을 가르치지는 않는가. 우리는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정치 활동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정당에 가입하고 활동하는 방법은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는가.

우리가 자유인이 되기를 바라지 않는 이들은 그것을 숨기려 한다. 진정한 '자유 과'는 따로 있다는 것을.

#### 社 說

## 영혼 없는 새누리와 김문수의 놀라운 변신

새누리당이 '자유한국당'으로 당명을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한나라당에서 새누리당으로 당명을 바꾼 지 꼭 5년 만이다. 당명은 오는 13일 전국위원회에서 추인을 받으면 최종 변경된다.

이번 당명 개정은 대선을 앞둔 일종 의 '화장술'로 보는 이들이 많다. 지난 해 4·13 총선에서 대참패한 이후 박근 혜-최순실 게이트라는 초대형 스캔들 과 바른정당의 출범으로 원내 2당으로 내려앉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폐족의 위기에 처한 듯 했던 새누리당이 최근 고개를 들고 있다. 일부 의원들이 태극 기 집회에 참석해 강경 발언을 쏟아내 고 있는 것이다.

특히 새누리당의 잠재적 대권주자인 김문수 전 경기지사는 "제가 아는 박대통령은 국회의원 중 가장 청렴한 분"이라며 "감옥보다 더 고독한 청와대에 갇혀 모욕받고 있는 박대통령을 위해 힘을 보태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이처럼 탄핵안이 기각돼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김 전 지사는 그러나불과 2~3개월 전만 해도 "박대통령이 비리와 불통과 무능으로 도저히 직

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국민의 의견에 동의한다"면서 탄핵 찬성 입장을 분명 히 밝힌 바 있다.

더군다나 김 전 지사는 탄핵 소추안 가결 직후 "정치인에게 민심은 천심이다. 민심을 거스르면 천벌을 받게 된다"며 "책임을 미루고 살아 보려는 발 버둥은 추한 죽음을 재촉할 뿐"이라고 말했었다. 과연 그때의 김문수와 지금의 김문수가 같은 인물인지 헷갈린다. 일각에는 대선 출마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는 김 전 지사가 보수 지지층 흡수를 위해 돌출 행보를 시작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는다. 인지도에 비해 낮은 지지율을 벗어나기 위해 '친박 선택'이라는 결단을 했다는 것이다.

어찌 됐는 박 대통령과 그 추종자들은 지금 케케묵은 '종북 몰이'에 터무니없 는 음모론을 앞세워 촛불 민심을 뒤집으 려 애쓰고 있다. 김 전 지사뿐만 아니라 이인제 전 최고위원 등 당의 주요 인사들 까지 수구단체의 집회에 나가 시대착오 적인 대중 선동을 하고 있다. 석고대죄 해도 모자랄 새누리당이 극우 보수단체 에 기대려는 모습이 참 한심하다.

#### 종교칼럼

## '부처님답게'라고 입춘부적을 쓰다



원 묵 선덕사 주지

입춘(2월4일)이 지났으니 이제 정유년 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입춘에는 한 해 의 액난을 막고자 전국에서 삼재풀이 기 도나 삼재막이 기도를 올린다. 삼재는 대 삼재와 소삼재로 구분되는데, 대삼재는 물의 재난, 불의 재난, 바람의 재난이고, 소삼재는 무기나 도구로 인한 재난, 전염 병에 걸리는 재난, 굶주리는 재난을 말한 다. 이 삼재가 9년마다 들어와서 3년간 머무는데, 삼재가 시작되는 해를 들삼재, 그 다음 해는 묵삼재 또는 눌삼재라 하 고, 삼재가 끝나는 해를 날삼재라고 한 다. 3년 내내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들삼재가 가장 힘들다거나 눌삼재 혹은 날삼재가 가장 위험하다는 등 의견이 다 르다.

삼재의 액난을 막고자 입춘 즈음에는 사찰 뿐 아니라 삼천리 방방곡곡이 기도 터가 된다. 이름을 적은 속옷과 짚 인형을 태우기도 하고 용왕제를 지내거나 거리 에서 제사를 올리기도 한다. 부적을 써서 집에 붙이고 몸에 지니기도 한다.

띠에 따라 일률적으로 삼재가 들어와서 3년간 지속된다거나, 속옷을 태우거나부적을 붙이고 지니면 재난을 피한다는이런 일들은 모두 근거 없는 미신이리라.여덟 가지 곤란 가운데 하나인 학업난의경우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아무리 부적을붙인들 목표를이룰 수 없을 것이며, 학업난이 있다 하더라도 본인이 열심히 공부하면 부적을 붙이지 않더라도 목표를이룰수 있지 않겠는가. 집단적 어리석음이치유되지 않고 수백년, 수천년을 이어온것이라는 생각이들었다. 그러다가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부적을 보고 의미를 따져보다가 내가 단순논리로 잘못 판단했다는 반성을 하게됐다.

네 잎 클로버는 행운을 가져온다고 한다. 그래서 네 잎 클로버를 찾으면 책에 꽂아두거나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기도한다. 어느 날 무심코 책을 읽다가 네 잎클로버를 보면 선물을 준 사람을 떠올리

며 잠시 행복한 생각에 빠지게 된다. 이렇게 곁에 두거나 몸에 지니고 있으면 행운을 가져온다고 믿는 마스코트와 부적은의미가 다르지 않다. 네 잎 클로버를 미신이라고 하지 않듯이 부적도 의미를 살피면 미신이라고 통째로 비난하는 것은 과

삼재부적을 보면 하늘 높이 날아다니는 매 그림과 함께 하늘의 눈으로 사방팔 방을 살펴서 재앙을 막고 보호한다는 의미가 담긴 글자와 그림이 담겨 있다. 이런의미를 담은 종이를 주면서 '한 해 살아감에 어려움이 없기를, 평온하기를'하고 축복해주는 것이 무슨 미신이겠는가. 다만이 부적이 부적 자체에 신묘한 효능이 있는 것으로 종교화되고 상업화되면 미신이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속옷을 태우는 것도 그렇다. 일을 잘못 해 송사에 휘말렸는데 속옷을 태우면 상 대가 갑자기 소송을 취하해주겠는가? 음 식을 잘못 먹어 식중독에 걸렸는데 속옷 을 태우면 낫겠는가? 속옷을 태우는 의미 를 다시 짚어보아야 한다.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종이를 한 장 주 고 힘든 것을 적으라고 하고는 다 적은 종이로 비행기를 접어서 날리라고 한다. 풍선에 힘든 일을 적고는 풍선을 터뜨리라고 한다. 종이에 힘든 일을 적어서 태워버리라고 한다. 힐링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기법들이다. 이런 힐링 기법과 속옷 태우기는 같은 방식이다. 자신을 짓누르는 그 어려운 일들에 대해 잠시 극복하는 상태를 느끼게 함으로써 그 일은 극복가능하다는 자기 암시를 주고, 힘을 내도록 격려하는 것이다. 우리 조상들은 수백, 수천년 전부터 알게 모르게 이런 힐링 기법을 쓰고 있었던 셈이다. 그러나속옷을 태우는 행위 자체를 신비화하고종교화하면 이역시 미신의 오류에 빠지게 될 것이다.

입춘 기도하시는 분들에게 드리려고 처음으로 부적을 만들었다. 스마트폰 크 기의 종이에 '부처님답게'라고 손 글씨로 적었다. 훔치면 즉시 도둑이 되고, 거짓말 하면 즉시 거짓말쟁이가 되듯이, 우리가 부처님답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 그 즉시 부처님으로 사는 것이다. 기도하 고 축원한 뒤에 나누어 주면서 이 부적을 보면 볼수록, 생각하면 할수록 삶이 더 나 아지고 더 행복하고 평온할 것이라고 알 러드렸다. 이런 부적, 괜찮지 않은가!

## 송정역 환승센터 논란 소지 없게 추진해야

광주시가 지지부진했던 송정역 복합 환승센터 개발 사업에 속도를 붙이기 위해 사업 방식을 변경하는 고육책을 내놓았다. 시는 엊그제 환승센터 개발사업을 민간업체가 건설한 뒤 소유권을 갖되 기부채납(BOT)하는 기존 방식에서 건물을 짓고(Build) 소유권(Own)과 운영권(Operate)까지도 갖는 BOO방식으로 변경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S건설 컨소시엄이 총사업비 2480억 원을들여 KTX, 도시철도, 버스 등 환승시설과 업무 상업 문화 등 지원시설을 갖춘 지상 9층 지하 5층 규모의 환승센터를 건립하는 프로젝트다.

애초에 시는 민간업체와 30년 사용 뒤 기부채납하는 조건을 놓고 협의했으나, 투자 자본 회수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 투자 실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 만 이런 방식은 건물 등을 한시적으로 사용한 뒤 공공기관에 양도하는 기부 채납 조건이 빠진 데다 개발업체가 이 른바 돈이 되는 상업·업무시설 등에만 집중 투자할 경우 특혜 시비 등 논란이 예상된다.

광주시가 올 연말까지는 송정역 개 발사업에 착공하기 위해 사업 방식을 변경한 고충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2010년부터 사업 계획을 마련했으나 현재까지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면밀한 검토 없이 사 업을 추진하다 보면 불필요한 논란으로 사업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시는 송정역을 이 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 해 목표대로 사업에 착수하되 특혜 시 비 등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 기 고

# 황혼이혼, 졸혼 그리고 휴혼



김 원 태 전남대 명예교수

"그대 없이는 못살아 나 혼자서는 못살 아 헤어져서는 못살아 떠나가면 못살아" 패티김의 노래 '그대 없이는 못살아'의 노랫말이다. 젊은이들에게는 사랑의 노랫말이지만 노부부들에게는 그대 없이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으니 죽을 때까지 내 곁에서 나를 부양해 달라고 하는 구속의 노랫말이 될 수 있다.

자녀들을 출가시킨 뒤 노후에 가정과 배우자의 구속에서 벗어나 홀로 서기를 실행하고자 하는 황혼이혼의 비율이 해마다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통계에 의하면 2009년 총 이혼 건수의 22.8%이던 것이 2014년에는 28.7%로 매년 1% 이상 늘어나고 있고 건수로 보면 3만 2000건이나 된다. 황혼이혼에 공감한다는 노인들이 70.

4%나 되어 우리나라 황혼이혼이 위험수 위에 육박하고 있음을 실감하게 된다.

그런데 황혼이혼을 예방하고 부부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이 바로 졸혼이다. 졸혼이라는 말은 결혼을 졸업하다는 뜻을 가진 것으로 부부가 법적 혼인관계를 유지하지만 각자 떨어져 살면서 서로 간섭하지 않고 자유로운 생활을 꾸려가는 삶을 의미한다.

졸혼은 일본 여류작가 스기야마 유미코가 2004년 출판한 '졸혼을 권함'이라는 책에서 비롯되어 일본 결혼문화의 새로운 트렌드로 확산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요즈음에 와서 본격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황혼이혼은 법정 다툼 끝에 결혼 생활을 청산하고 각자의 삶을 사는 것이지만 졸혼은 결혼 상태는 유지하면서 독립적으로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적으로 받아들여시고 있다.
한 결혼정보회사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졸혼에 대한 찬성이 57%, 반대가 40%로 나타났고 여성의 찬성 비율이 더 높아서 여성의 53%가 찬성인데 비해 남성은 32%만 찬성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노년의 여성들은 수십년간 남편과 시집에 얽매였던 결혼 생활이 지겨워지고 속박에

서 벗어나고파 졸혼을 찬성한다고 한다.

탤런트 백일섭(73)은 얼마 전 졸혼을 선언하고 여수에 가서 취미인 낚시와 혼 밥 혼술을 즐기며 홀로 살고 있다. 엄앵 란(81)·신성일 부부는 오래 전부터 서울 과 대구에 떨어져 살면서도 돈독한 부부 관계를 유지하는 졸혼생활을 하고 있다. 전원주택의 낭만을 선호하는 남편과 도 시생활의 편리함을 추구하는 부인이 떨 어져 사는 경우도 역시 졸혼의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졸혼에 이어 요즈음 휴혼이란 말이 새롭게 등장했다. 졸혼이 결혼 졸업이라면 휴혼은 결혼 휴업이라고 할 수 있다. 결혼 기간 동안 가족 부양을 하느라고 힘들게 살아 왔던 사람이 일정기간 휴식기간을 갖고 취미생활도 하면서 사생활을 즐기자는 것이다. '엄마가 뿔났다'라는 드라마에서 김혜자는 가사 노동에서 벗어나기 위해 휴업을 선언하고 집을 떠나기도했는데 휴혼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대학교수들은 6개월 내지 1년간의 안식년을 갖는데 이 기간 동안 하고 싶은 연구도 하고 견문도 넓히고 재충전하고 돌아와 교수생활에 더욱 매진하게 된다. 이와마찬가지로 결혼생활에도 휴식 기간을

갖게 되면 개인 생활을 누리고 돌아와 새로운 기분으로 결혼생활에 임할 수 있게된다. 이 휴혼은 노부부뿐만 아니라 모든 연령의 부부에게 적용될 수 있다. 특히 시집과의 불화로 이혼하려는 젊은 부인들이 일정 기간 동안 가사노동과 시부모 봉양의 의무를 내려 놓고 자기만의 시간과생활을 갖게 된다면 갈등을 해소하고 화해와 재결합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젊은 날의 이혼율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있는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휴혼 후에 돌아 오면 가정과 시집에 더욱 충실한 며느리가 될 것이다.

휴혼을 공약으로 내걸 대선 후보자가 있다면 모든 여성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을 것 같다. 휴혼을 제도화해서 누구나 원하면 휴혼을 시행할 수 있게 하면 어떨 까. 마치 육아휴직을 국가에서 제도적으 로지원하는 것처럼 말이다.

사랑과 정으로 노년에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는 부부들이 많지만 부부간에 갈등과 대립이 날로 극심해지고 서로 간에 미움과 분노가 쌓인다면 황혼이혼이라는 불행한 결말로 치닫기 전에 졸혼이나 휴혼 등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 無等鼓・

O. J. 심슨 재판

유죄일까? 무죄일까?

1995년 10월 3일 오전 10시. 미국 전역의 전화 접속률이 갑자기 절반으로 뚝 떨어졌다. 대도시에서는 배전반(配電盤)의 퓨즈가 타는 사고가 잇따랐다. 모든 가정과 사무실에서 일제히 TV를 켰기 때문이다.

로스앤젤레스 고등법원에서 세 시간 동안 의견을 조율한 배심원들은 판결문 을 낭독했다. "O. J. 심슨은 무죄입니다." 역사상 가장 성공한 미식축구 선수이

자 화려한 경력을 쌓은 배우로서 미국인의 우 상이 된 심슨의 살인 혐 의를 다룬 133일간의

재판은 '살인 법정의 슈퍼볼'로 불릴 만큼 전 세계인의 관심을 끌었다. 당시 미국을 방문한 러시아 대통령 보리스 옐친이 워싱턴공항에 마중 나온 빌클린턴대통령을 만나자마자 "심슨이 범인이라고 생각합니까?"라고 물었을 정도였다.

'최대의 흥미를 자아낸 저속한 소설'로 불린 이 재판은 미국을 흑과 백으로 양분시켰다. 백인의 3분의 2는 심슨의 살인 혐의를 믿었고, 흑인은 반대로 심슨을 '인종차별에서 비롯된 음모의 희생자'로 여겼다.

3시 도 어졌다. - 초호화 멤버로 꾸려진 심슨의 변호 인단은 법정에서 검찰 측의 몇몇 실수를 이끌어 내며 승기를 잡아 갔다. 심슨의 변호사 조니 코크런은 재판을 지배했고, 재판을 '인종 문제'로 비화시켰다. "검찰은 모든 흑인을 태워 죽이려합니다. 이것은 인종차별입니다. 제노사이드(대량학살)입니다!"

형사재판에서 무죄로 풀려난 심슨은 그러나 14개월 후 진행된 민사소송에선 패배했다. 심슨은 '피해자의 유족에게 3350만 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

는 선고를 받고 파산했다. 심슨의 유죄를 믿는이들에겐 '절반의 정의'가 구현된 셈이다.

당시 심슨의 무죄 판결로 '인종 갈등' 은 가리앉았지만 후유증은 거셌다. 재판 이후 설문조사에서 미국인의 절반 이상 이 "사법 체계에 대한 존경심을 잃어버 렸다"고 답했다. '편 가르기와 이슈 만들 기'로 '사실과 증거'를 덮어 버린 심슨 재 판의 결과가 미국인들로 하여금 자국의 사법 체계를 의심하게 만든 것이다.

우리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을 눈앞에 두고 있다. 사법 체계에 대한 불 신이 생겨나지 않도록 냉철하고 준엄 한 판단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T 나오기들 기대안다. /홍행기 사회1부장 redplane@

## 光则日報

The Kwangju Ilh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의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편집국안내 경제부 220-0663 〈대표FAX 222-4918〉 〈FAX 222-4938〉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정치부 220-0632 문화미디어부220-0664

사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사 회 2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3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8005》 《FAX 222-0195》 기획관리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7-9500》 《FAX 222-0195》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십시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